

## 「차별적·권위적 표현 평가 유형 및 용례 구축」에 대한 토론문

이수진(전남대)

「차별적·권위적 표현 평가 유형 및 용례 구축」은 공공언어를 사용할 때 권위적 표현 또는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언어적 감수성’을 기반으로 차별적·권위적 표현의 개념, 유형을 살펴보고,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부족하나마 발표문을 읽으면서 든 의문과 궁금증을 정리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발표문에서는 ‘권위적 표현도 넓은 범위에서 차별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권위적 표현 역시 차별적 표현의 일종으로 처리하여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발표문을 읽으면서 ‘차별적 표현’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는데 내용 전개상 ‘권위적 표현’이 특별히 나뉘어야 하는 설득력이 조금 약한 듯합니다. 선생님께서 전개한 위계를 보면 ‘차별적 표현’과 ‘권위적 표현’이 같은 층위에서 나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눈 이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2. 성차별, 지역차별, 인종·민족 차별과 관련 선행 연구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차별어의 양상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언어에서는 차별 의도가 없음에도 관습 표현에 의한 차별 표현, 사용 맥락에서 차별의 의미를 담은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연구인 김지혜(2022)에 지적한 것과 같이 ‘서울: 비서울’, ‘강남: 비강남’, ‘명문대’처럼 대조군이 있는 용어라면 언제든지 차별적 표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계층에 대한 편견, 비난, 배제를 담지 않기 위한 개선이 필요한 깊이 공감하는 바이나 발표문에서 이면적 차별어로 보고 있는 용어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적·권위적 표현을 개선해야 하는 ‘공공언어’의 범주를 무엇으로 설정하고 계신지요? 공공언어 범주에 따라 생산하는 문서의 성격이 달라 주로 사용되는 차별적 표현이나 권위적 표현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3. 기존에 선행한 작업을 제시해 주셨는데 각 차별적 표현의 분류별로 어떠한 비중으로 차별 표현이 대체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개선이 시급한 표현의 영역이 어느 부분인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4. 실제 용례를 살펴보고, 선행 연구의 결과를 유형화하여 차후 차별적·권위적 표현 개선을 위해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봅니다. 궁금한 것은 이러한 차별적 표현, 권위적 표현을 선정하여 개선한 기준이 있을 텐데, 발표자께서 확인하신 차별적·권위적 표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항목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5. 지엽적인 것이나, 전체 발표문에서 3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장의 차별적, 권위적 표현

의 개념과 유형, 4장의 차별적, 권위적 평가 유형 및 용례 사이에 누락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라면 장차가 수정되어야 할 듯합니다.

수없이 많은 어휘와 표현 중 차별적·권위적 표현을 목록화하고 대체 표현을 제시하는 일이 쉽지 않으나 이러한 표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 사회의 언어 사용과 인식 개선에 큰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공공언어에 녹아 있는 차별적·권위적 표현의 현황을 살피고 개선을 위한 용례 구축에 뜻깊은 연구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며, 토론을 마칩니다.